



강북구의회
GYEO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10월 19일
(월요일)

강북신문 7면

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

이백균·장동우 의원 공동발의, 행정력·예산낭비 줄이기 위해 추진

강북구의회 이백균·장동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'전자건강보험증(IC 및 모바일 카드) 도입 촉구 결의안'이 제19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.

이번 결의안은 현행 종이건강보험증이 환자 진료 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개인의 응급 상황시 약 부작용, 만성질환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을 야기하고 메르스 같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대응이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.

이백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"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 접수시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,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꼭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


이백균 의원



장동우 의원

특히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'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'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선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길 촉구했다.

동북일보 5면

전자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

이 백 균 의원

(새정치/수위1·2동, 우이동, 인수동)

강북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백균 의원은 장동우 의원과 공동발의한 '전자건강보험증(IC 및 모바일 카드) 도입 촉구 결의안'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.

이백균 의원은 현행 종이건강보험증은 환자 진료 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개인의 응급 상황시 약 부작용, 만성질환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민들에



▲ 이백균 의원.

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같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대응이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.

또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 접수시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고 있어,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,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,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이백균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「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」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선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 만큼,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

용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.

이에 강북구의회는 환자의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개인의 응급상황 및 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, 중복과잉 진료에 따른 부작용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, 진료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재정누수를 유발하는 등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을 중지하고 진료기록 왜곡 방지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.

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 통과



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이 지난 16일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섰다.

이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

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종이건강보험증은 환자 진료 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개인의 응급 상황 시 약 부작용, 만성질환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같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대응이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,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 접수 시 주

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고 있어,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,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이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'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'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선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 만큼,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.

장동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은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.